

---

# 삼국시대 장신구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에 관한연구 (백제장신구를 중심으로)

신미영\*, 박승철\*\*

##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Ornaments in the Three Kingdom Period (Focused on Baekje's ornaments)

mi-young Sin\*, seungchul park\*\*

**요 약** 한나라의 전통적 사상은 그 나라의 지리적 환경, 종교사상 등에서 그들의 의식구조를 알 수 있고 유적과 유물의 특성에서 그 나라의 문화 양상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역사는 5000년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백제시대의 문화는 우리역사상 매우 뛰어난 유물들을 창출 하였다. 백제시대의 장신구는 고구려, 신라시대의 장신구와보다 백제 특유의 문양과 세공기술에 있어 부드럽고 풍만한 아름다운 곡선미를 추구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백제시대의 장신구중 관, 관식, 귀걸이, 목걸이, 뒤꽂이 등을 중심으로 장신구의 조형적 특징과 문양에 나타난 상징성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고구려, 신라와 함께 삼국시대의 장신구를 비교하여 백제장신구를 부각시키기 위해 백제장신구에 대한 자료 수집과 국립부여박물관, 공주박물관, 국내외 전문 서적과 국내 참고문헌 등을 고찰 하였고 논문 등을 통하여 백제 금속공예품의 문양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연구 하였다.

백제시대의 역사는 화려하고 찬란한 예술적 문화를 지니고 있었지만, 후대에 오르면서 역사적 자료나 그 내용을 뒷받침해줄 유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백제문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백제시대의 장신구는 단순한 장신구로서 만의 기능이 아닌 백제인의 정서와 다양하고 창조적인 정신세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산업화 속에 문화컨텐츠라는 요소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백제시대 문양을 더욱 연구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조형적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백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주제어** : 백제문화, 고구려, 신라, 조형적, 백제금속공예

**Abstract** When it comes to a country's traditional ideas, that country's geographic setting and religious thought show the people's consciousn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istoric sites and relics show their cultural aspects. Our country has 5000-year cultural history. Especially, the Baekje cultural history created very remarkable relics in our history. With regard to Baekje's own patterns and workmanship, their ornaments were more focused on the beauty of soft and voluptuous curves than that of Goguryeo and Silla. This study researched design characteristics of ornaments and symbolic aspects of the patterns by focusing on crowns, crowns' accessories, earrings, necklaces, chignon ornaments of the Baekje's ornaments, To put emphasis on Baekje's ornaments by comparing Baekje's ornaments with Goguryeo's and Silla's. This study collected data on Baekje's ornaments, and reviewed domestic references and specialty publications at the Buyeo National Museum, Gong-ju National Museum, home and abroad, and studied the images of Baekje's metal crafts and patterns through theses. Baekje had splendid and glorious artistic culture, but there are not many historical data and supportive relics left these days. Therefore, a lot of attention, researches and development on Baekje culture are needed. This study found that the ornaments of the Baekje era have not only ornament functions but also the people's creative mind. The culture contents in recent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change people's recognition, and now they have interest in Baekje cultur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widely popularize Baekje by studying the patterns of the Baekje era more and developing various and new designs.

**Key Words** : Baekje cultural, Goguryeo, Baekje's metal crafts

---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교신저자)

논문접수: 2012년 10월 30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1월 30일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세계는 국제화,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별, 지역별 문화의 특성과 세분화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 문화산업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됨에 따라 수준 높은 문화산업의 등장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경제의 여러 가지 폐단에 대한 저항이 높아지고 정보혁명을 선도하는 지식기반산업이 국가의 지배적 산업 형태로 등장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과학기술과 산업화 속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보여주고 백제의 전통 문양을 접목 시킨 장신구를 연구 분석 하여서 우리 민족의 창의성을 알리고자 한다.

백제시대의 장신구는 인간의 미의식 표현 중 문양은 대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표현 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 되었다. 특히 백제시대의 문양은 우리 민족 고유의 조형미를 지니고 있어 현대의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꾸밈없고 소박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장신구에 아로새겨진 문양들은 백제시대 미적 의식세계의 가치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백제시대의 장신구는 고구려, 신라 시대의 장신구와는 달리 백제 특유의 문양과 세공 기술에 있어서 부드럽고 풍만한 아름다운 곡선미를 추구하여 왔다는 점에서 백제시대의 문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백제시대 문양을 고찰해 봄과 동시에 현대 디자인에 백제 문양을 응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백제시대 문양을 통해 우리 고유의 미적 조형감각을 재인식 하여 백제 시대의 문양과 미를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백제 시대의 대표 지역인 부여·공주 박물관의 문헌과 유물, 문양의 기원, 종류 등을 고찰하고 장신구의 개념과 부여·공주 박물관의 금속 장신구를 조사하였다. 또한 백제문양의 일반적인 고찰을 통해 예술적 관점에서 이론적인 배경을 모색하고 각각의 조형미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화 되었는지에 대해 조사 하였으며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의 장신구를 비교해 보았으

며, 백제 장신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백제장신구에 대한 자료 수집과 국립부여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내의 전문 서적과 국내 참고문헌을 고찰 하였고 논문 등을 통하여 부여·공주 박물관의 백제 금속공예품의 문양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 하며 연구하였다.

## 2. 본론

### 2.1 이론적 배경

장신구에 대한 문헌 기록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삼국시대의 장신구는 한국의 장신구사 뿐 아니라 미술사에서 까지도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예술에 있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국의 지리적 위치와 고유의 풍습에 따라 개성이 드러나고 상호간에 교류를 하였으며 유교, 불교, 도교의 사교가 전래되어 우리나라의 미술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장신구가 발달하면서 문양이 다양해지고 재료에 있어 금, 은, 옥류 등으로 되어 있는 장신구를 찾아 볼 수 있다. 금속 공예 중에서는 금, 은공예가 발달하였으며 금, 은세공 기법이 매우 정교하였고, 장신구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기법이 다양 했으며 표면에 작은 정으로 문양을 조각 하거나 투각 또는 다른 금속을 상감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정교한 기술과 채광술, 연금술 등과 같은 금속 공예술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의 금속공예품은 다양한 공예품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화려한 금제품으로 표현된 관식, 수하, 과대, 요패, 귀고리, 목걸이, 팔찌, 반지, 방울 등의 장신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 2.2 고구려 장신구 (BC 37~AD 668)

고구려 장신구에는 관, 관식, 귀걸이, 팔찌, 반지, 귀걸이 등 다양하게 출토 되었으나 신라와 백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목걸이는 고구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고구려의 장신구는 높은 세공술로 북방의 강인함과 소박함을 바탕으로 역동적이고 웅장한 미의식을 표출 한 시원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관식(그림1)으로는 원형, 반달모양, 꽃모양 등을 투조한 반월형 금동박판제가 알려져 있으며, 귀걸이(그림1)는 1형식과 2형식으로 두 부류로 나뉘지는데, 1형식은 소환식 귀걸이, 2형식은 이환부와 중간식 수하식의 세 부분으

로 구성된 수식부 귀걸이가 있다.

그리고 이환부 주환 에는 세환과 태환의 것이 있고, 수 하식에 있어 위는 구형이고 밑은 원추형을 이루되 모두 하나로 되어 있는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팔찌는 청동 제와 은제가 있으며 고리의 단면이 정원 형이고, 반지는 청동제, 은제, 금제 등이 있는데 안학궁지 2호분의 청동 반지는 윗부분이 타원형으로 넓게 되어 있다. 금반지는 금판을 가위 같은 것으로 베어 만든 것이다.



[그림 1] 고구려 장신구 / 왼쪽부터 금동관, 금귀걸이 (약수리벽화 고분). 머리뿔으로는 세봉(細棒)을 중앙에서 ㄱ형으로 구부려서 만든 청동제와 은제가 있다.

### 2.3 신라 장신구(BC57~AD935, AD668~935 통일신라)

신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황금의 나라로 알려져 왔고, 고분을 중심으로 발달돼 장신구는 거의 순금 제품이며 기교성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난 것이 많이 있다.

또한 신라에서 장신구는 왕족과 귀족들이 주로 착용 함으로서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으며, 관복은 물론 모자에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았다.

신라에서는 순금으로 만든 금관을 비롯해 금대, 금귀 걸이, 금가락지, 금팔찌등 화려한 장신구들은 당시의 뛰어난 공예기술을 집약케 한다. 삼국 중 신라는 장신구가 가장 호화스럽고 조형미가 풍부하며, 우아 하고 섬세하다. 특히 관(冠)은 10여점이나 출토되고 대부분 완형(緩刑)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 형식은 일률적인 원칙을 따르고 있다. 신라의 전기 장신구를 보면 대부분이 실용성이 아닌 상징성을 띄고 있었으며 주로 순금제품임을 볼 때 장식적 사치성이 많았음을 엿볼 수 있다.

신라시대의 관모는 처음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 하였으나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정치적 종교적 의식에 있어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귀걸이(그림2)는 왕릉, 귀족계급의 무덤 등에서 출토되었는

데 이 또한 정교하고 호화스러운 금속공예 예술을 발휘한 형태를 구성으로 신라인의 미적 감각이 잘 나타난 유물이다. 신라 귀걸이의 가장 큰 특색은 누금세공기법(Filigree)으로 장식하였다. 목걸이는 신체 중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인 가슴을 장식하는 것으로 최초에는 주술적인 목적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사회의 발달과 변함에 따라 장신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발전해온 것이라 생각된다. 신라의 목걸이(그림2)는 환옥, 관옥, 곡옥 등 여러 가지 옥류를 이용하여 유기질의 끈으로 연결한 것들로 끈들이 부식되어 그 원형을 알 수 있는 예들은 그리 많지 않다. 팔찌(그림2)는 귀걸이와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신라의 팔찌 중에서 제작 연도가 가장 오래 된 것은 황남 대총에서 출토된 금팔찌이다. 속이 찬 금봉을 고리 모양으로 이루어 양끝을 맞붙이지 않고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신라시대 세공 기술의 우수성을 엿 볼 수 있다.



[그림 2] 신라의 장신구

### 2.4 백제 장신구(BC18~AD660)

백제는 고구려의 북조 문화와 중국의 남조 문화의 영향을 받아 백제문화를 발전 시켰으며, 고구려보다 한층 다양한 장신구를 발견 할 수 있었다. 백제의 금속품유물이나 장신구의 출품 또한 그리 많지 않았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과 왕비의 것으로 보이는 금장식은 백제문화가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여 주었고, 문양과 세공기술에 있어서 신라의 장신구류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예술품으로 부드럽고 풍만한 아름다운 곡선미를 추구 하였다.

백제 장신구의 문화배경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백제인의 사유방식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고구려, 신라, 가야 등 삼국이 모두 유교, 불교, 도교를 전통사상의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여 왔듯이[1] 백제 역시 고유 토착신앙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사상의 외래종교를 수용

[1] 이상우(1999), 동양미학론, 시공사, 17

하여 백제인의 고유 문화배경과 정신세계를 형성하였고, 곧 이러한 배경은 백제시대 장신구문화 형성에 크게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신앙적 측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신숭배상과 자연에 대한 신앙 등 고대 우리민족의 고유한 신념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장신구류는 왕과 왕비의 금제 장식, 금제 목걸이, 왕의 머리뒤꽂이, 왕비의 은제 팔찌, 마디 있는 목걸이 등 모두가 화려한 작품으로 AD 6세기 초반의 뛰어난 금속공예술을 보여준다.[3]

을 보여주며, 앞과 뒤가 거의 대칭을 이루는 관모의 모습 또한 신라의 법과는 다르다. 또한 관모 뒤로 치켜 올린 둥근 장식은 가야 및 일본 지역에서도 발견되어 교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관모에는 인동무늬, 물결무늬, 비늘무늬, 용무늬 등 다양한 무늬가 장식된다.



[그림 3] 금동제 관모

〈표 1〉 삼국시대의 장신구에 표현된 문양

	특징	장신구 종류
고구려	초화문, 인동당초문을 주로 사용, 사실적 표현, 봉황과 삼족오 문양, 역동적이고 웅장한 미의식 표출.	 금동투조금구      병산동금귀걸이
백제	금속제판에 연화문, 인동문, 초화문 등을 사용.	 무령왕비 금제관식      무령왕뒤꽂이
신라	순금 장식을 주로 사용. 보수적이며 토착적인 아름다움을 추구.	 금령총 가슴 목걸이      금령총 금제 가는 귀고리 귀걸이

2.4.1 관, 관모

머리에 쓰는 관, 관모는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며, 왕이나 그 지역의 수장들이 착용할 수 있었기 때문작되었으며 시대와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백제의 관은 관태와 세움 장식이 있는 외관과 내관이 있는 관모로 이루어진다. 나주 신촌리 금동관에서 보듯이 꽃과 풀을 형상화한 세움 장식은 백제 고유의 독창성

2.4.2 관식

무령왕(501~523)릉에서 출토된 관식은 그 제작기법에서 고구려, 신라, 가야에 비해 전혀 뒤지지 않는 기법임을 엿볼 수 있다. 관은 의식을 행할 때 착용한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거나 또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형태와 재질에 차별을 두어서 장식으로 착용하게 하였다.

무령왕(501~523)의 금제 관식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표현 기법을 적용해 백제 장인의 독창성이 한껏 발휘된 작품이다. 왕의 머리 부분에서 발견된 이 관식은 수공 흔적이 남아 있다. 관식 밑 부분에 촉과 구멍이 있어서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모 앞뒤에 꽂는 장식물로 추정된다. 그 형상을 보면 인동 한 줄기로 화염무늬를 상징한 듯하며, 연꽃을 적당히 배치하고 많은 달개를 금실로 꼬아 매단 형태이다. 특히 화염무늬는 태양을 상징하므로 무령왕의 권위에 합당한 모티브를 적용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왕비의 금제 관식도 그 제작 기법이나 문양 구성은 왕의 관식과 비슷하나 다만 크기가 작고 달개장식이 없다. 간결하지만 세련미가 돋보인다. 특히 관식에 장식된 연화무늬는 그 양식이 중국 육조시대에 유행한 스타일이며, 중국 남조 미술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작품이라는 견해[4]가 있어 주목할 만하다.

[2] 김정옥 (2010), 백제장신구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19

[3] 최준자 (1992), 장신구의 세계, 예경출판사, 82

이외에 은제 관식은 부여 하황리, 남원 이백면 척문리, 나주 반남면 흥덕리 등의 고분에서 출토된 바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은제 관식은 관리들이 착용한 것이라 한다. 나주 반남면 신촌리 9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도 관리나 그 지방의 유력자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왕은 대개 금관을 착용했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조금 더 정확한 실상에 접근할 수 있다. 즉 “백제의 의복은 고구려와 대략 같다. 조정의 배례와 제사 시에는 관 양측에 날개를 붙이는데, 전쟁 때에는 붙이지 않았다. 나솔(16관등의 6위)이상은 관에 은화로 장식한다.”는 『북사(北史)』의 기록 및 “백제에서는 왕이 소매가 큰 자색 두루마기와 파란 비단바지를 입고, 검은 비단 관에 금화로 장식하며, 흰 가죽 띠에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 관인(官人)은 붉은 비단으로 옷을 짓고, 은화로 관을 장식했으며”라는 『당서(唐書)』의 기록 등이 참고가 된다.<sup>[4]</sup>



[그림 5] 무령왕 금제관식 [그림 6] 무령왕비 금제관식

<표 3> 백제웅진시기 관·관식 비교 분석

장신구	조형특징	기법	재료	출토지
 	외관과 반원형 모양의 내관 형태. 식물문 금동관과 금동관 모로 구성.	투조 기법 점선조 기법	금동	나주 신촌리 9호분 금동관
	연화문, 화염문. 활동적, 화려함. 좌우 비대칭. 광배모양. 127개의 영락으로 인한 입체감 두드러짐. 왕의 권위 상징.	끝을 이용한 투조 기법. 모조 기법.	금	무령왕릉 출토 무령왕의 관식

	화염문, 연화문. 정적, 고요함. 좌우대칭. 영락없음 불교적인 요소 반영.	끝을 이용한 투조 기법. 모조 기법.	금	무령왕릉 출토 무령왕비 관식
---	---	----------------------	---	-----------------

### 2.4.3 귀고리

삼국시대의 귀걸이는 크게 굵은고리귀걸이와 가는고리귀걸이로 구분되며 이중 백제의 귀걸이는 대부분이 가는고리귀걸이다. 거의 금이나 금동으로 제작하였으며,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 간단한 형태이다. 백제의 귀걸이 중 웅진시기의 귀걸이는 가장 세련되고 화려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무령왕과 왕비의 귀걸이는 매우 화려한 셋장식과 드림을 갖춘 이 시기의 대표작이다.

한성시기의 귀걸이는 원형 혹은 끝부분이 다소 돌출된 단순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웅진시대에는 누금기법 등 보다 복잡한 기교가 발휘되어 화려한 모습의 귀걸이가 제작되었다. 사비시대에는 불교문화 확산에 따른 부장품 간소화의 영향으로 이전시기에 비해 훨씬 단순한 심엽형의 귀걸이가 제작되었다.

#### · 무령왕릉-귀걸이

공주 무령왕릉 출토 귀걸이는 백제귀걸이 중 가장 화려하고 세련된 의장을 자랑한다. 특히 금 알갱이나 금선을 표면에 붙여 장식하는 누금세공기법이 사용되어 웅진시대 백제의 뛰어난 금세공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무령왕릉 출토품은 무덤의 조성연대를 통해 그 제작시기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무령왕릉에서는 4종류의 가는고리귀걸이가 출토되었는데, 왕의 귀걸이가 1쌍이고 왕비의 귀걸이가 4쌍(3종류)이다. 무령왕의 귀걸이는 하나의 중심 고리에 2줄의 귀걸이가 매달려 있다. 큰 귀걸이의 셋장식은 3개의 날개가 달린 장식을 오므려 만든 반원통모양 2개를 상하로 대칭되게 붙인 형태이고, 끝장식은 큰 심엽형장식을 중심으로 2개의 작은 심엽형장식을 대칭이 되도록 매달았다.

[4] 진홍섭 (1982), 백제, 신라의 관모, 관식에 관한 23가지 문제, 고분화총론제10집, 133

[5] 정창범 (2002), 아름다운 한국공예의 역사, 학연문화사, 88



[그림 7] 무령왕 금제귀걸이

작은 귀걸이의 셋장식은 작은 고리를 연결시켜 만든 구체 5개를 상하일렬로 연결하였고, 끝장식은 곱은옥에 금알갱이 붙임기법이 가미된 금모를 씌웠다. 그리고 금모에도 좌우대칭으로 2개의 심엽형장식이 달려 있다.

왕비의 귀걸이는 모두 4쌍으로 화려한 장식을 보이는 2쌍은 머리 쪽이 간소하고 크기가 작은 2쌍은 발쪽에서 출토되었다. 왕비가 착용하였던 귀걸이는 중심 고리, 셋장식, 드림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1쌍은 주환 아래에 노는 고리를 건 후 이 고리에 2줄의 귀걸이를 매단 형태이다. 길이가 11.8cm로 사슬형 연결금구에는 탄환형의 끝장식이 매달려 있다. 짧은 귀걸이의 셋장식은 작은 고리를 연결시켜 만든 반구체에 끼워진 유리구슬이 달려 있으며, 네 날개모양의 끝장식은 사슬형 연결 금구에 달려 있다. 4점짜리 간소한 금제귀걸이는 다른 연결고리 없이 드림을 직접 중심 고리에 꼬아 묶어 연결한 방식으로 백제 귀걸이의 특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의 가는고리귀고리와 굵은고리귀고리를 모두 갖추었을 뿐 아니라, 육면체나 구체에 맞새김을 한 셋장식에서 심엽형(心葉形) 끝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하다. 양국에서 출토된 귀고리의 양식 비교를 통해 얻은 결론이다. 가는고리귀고리이며, 고리 아래 셋장식은 속이 빈 원통형, 끝장식은 심엽형 드리개로 귀고리의 기본 형태를 갖추었다. 여기에 조금 변화를 주어 또 다른 드리개에는 구슬 모양 장식과 달개에 곱은옥을 더해 무령왕의 권위를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왕비 귀고리의 새로운 양식은 이른바 심엽형장식인데, 이는 신라 귀고리와 연관되는 부분이다. 물론 무령왕 귀고리의 원통형 셋장식 또한 그러하다. 특히 심엽형장식은 여성미를 한껏 살린 새로운 모티브로 생각된다.



[그림 8] 백제의 귀걸이

〈표 4〉 무령왕릉 출토 왕과 왕비의 귀걸이 조형특징 분석

장신구	조형특징	기법	재료	출토지
왕의귀걸이 	주환은 세환을 선호하고수하식을 금사로 연결시켰으며, 하부장식은 1개의 큰 심엽형 장식에 앞과 뒤에 작은 심엽형을 대칭.	누금 세공 기법. 금사 꼬임 연결기법.	금	백제 무령왕릉 출토
왕비 귀걸이1 	주환은 세환을 선호하고수하식을 2줄의 금사로 연결되었으며, 중간식은 금쇄에 영락을 꼬아서 만들고 하부장식은 탄환형과 초실형을 달아 매우 여성적이며 우아함을 강조.	누금 세공 기법 금사 꼬임 연결기법 반구체 연결기법	금	백제 무령왕릉 출토
왕비 귀걸이2 	주환은 세환을 선호하고수하식에는 1줄의 금사와 중간식은 투작반구체, 심엽형 영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장식으로는 초실형을 달아 매우 여성적이며 우아함을 강조.	누금 세공 기법 금사 꼬임 연결기법 반구체 연결기법	금	백제 무령왕릉 출토
왕비 귀걸이3 	주환은 세환을 선호하고 중간식은 1줄의 금사로 되어 있으며 하부장식에는 원형 영락으로 단조로움을 강조. 뿔을 사용하지 않고 선을 감아서 연결.	금사 꼬임 연결기법	금	백제 무령왕릉 출토

〈표 5〉 귀걸이 유리제와 옥류의 형태와 재료

형태	이미지	사용	재료
곡옥		귀걸이에 사용	경옥제
금모 곡옥		귀걸이에 사용	경옥제

2.4.4 목걸이

신석기시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목걸이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의 뼈나 이빨과 조개껍데기 등을 사용하여 장신구를 만들어 몸을 치장 하였다. 청동기 시대를 보면 무덤에서 대롱옥과 곱은옥, 둥근옥 등으로 만든 목걸이와 귀걸이를 보면 미의식과 신앙의 표현으로 부장품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삼국시대에는 벽옥, 수정, 활석, 유리, 마노, 구슬 등이 조개더미유적에서는 흙으로 만든 곱은옥도 출토 되었다. 목걸이는 신체 중 가장 눈에 띄는 목과 가슴에 주술적인 목적에서 착용하다가 점차 장신구로서의 성격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장신구가 삼국시대에 와서는 신분구별이나 권위의 상징, 미적표현을 더해가면서 구체화, 세분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삼국시대 중 신라의 목걸이는 완형의 목걸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또한 출토품의 양도 가장 많다. 그러나 고구려 시대의 목걸이는 출토되지 않았으며, 문헌에서도 기록이 없다.

백제시대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목걸이는 종류가 다양한데, 아홉 마디로 되어 있는 구절목걸이와 칠 절 목걸이가 있으며, 금 알갱이들을 누금기법으로 활용한 화려함을 나타내는 금제 목걸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법의 목걸이들은 신라지역에서 출토되는 금사슬로 연결된 목걸이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백제시대의 특징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백제의 목걸이는 금, 옥, 유리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다. 또한 금제목걸이 외에도 능산리 절 터 등 많은 유적에서는 옥이나 유리로 만든 목걸이가 많이 나온다.



[그림 9] 금제 일곱마디 목걸이(왕비)



[그림 10] 금제목걸이(왕비)

2.4.5 팔찌

팔찌는 귀걸이와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지녔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시대에 조개껍데기, 물고기, 동물 이빨 등을 이용한 팔찌, 발찌가 있다.

<표 7> 목걸이 조형 특징

조형특징	이형옥	옥, 유리제의 색채	기법	재료
현대적 감각 돋보임 1줄 형식 용각 금제 봉 사용 각종각양(各種各樣)의 옥류(玉類)를 연결	금모곡옥 금박구슬 모자곡옥 가지형 표주박형	다양한색의 유리제 주로 다홍색 계통이 많음	누금 세공	금제 유리제 옥제 탄목

<표 8> 백제 왕비의 7절, 9절목걸이

목걸이	이미지	조형특징	재료
왕비 금제 7절목걸이		육각 금제 봉을 7마디로 연결 현대적 감각 돋보임 정제미와 세련미	금
왕비 금제 9절목걸이		육각 금제 봉을 9마디로 연결 현대적 감각 돋보임 정제미와 세련미	금

무령왕릉에서 6쌍 12점, 금제천 3쌍, 은제천 1쌍, 금은제천 2쌍 팔찌가 왕비자리에서 발견되었으며, 백제의 팔찌에는 금, 은, 금동제가 있는데, 손목에 끼울 수 있게 둥글게 만들었으나, 팔찌의 양 끝을 붙이지 않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팔찌 외면(外面)을 거치(鋸齒)문과 용문(龍文)으로 한 것 또는 구성이 세금봉(細金棒)을 쇠상으로 연결 한 것이 있다. 거치문의 팔찌는 백제 지역뿐 아니라 고구려, 신라, 가야 지역에서도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삼국시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팔찌 모양으로 추측된다.

백제의 팔찌는 금속막대를 둥글게 구부린 단순한 형태로부터 여러 개의 막대를 서로 연결하여 완성한 것, 팔찌 바깥 면을 톱니바퀴무늬나 용무늬로 장식한 것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제작되었다. 이 가운데 막대기를 구부린 것과 톱니바퀴무늬가 있는 것은 삼국에서 모두 제작하였으며, 여러 개의 막대를 연결한 것은 목걸이와 마찬가지로 백제 특유의 방식이다. 무령왕비의 은제 팔찌에는 팔찌 안쪽에 '다리'라는 장인이 만들었다는 내용의 명문이 있으며, 바깥 면에 용무늬를 생동감 있게 조각하였다.[6]



[그림 11] '다리작' 명 은팔찌

무령왕비의 왼쪽팔목에는 '多利作'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은팔찌가, 오른쪽 팔목에는 금팔찌가 각각 1쌍씩 끼워져 있었다. 이 중에서 '多利作'이라는 장인의 이름이 새겨진 은제 팔찌 1쌍은 무령왕비의 왼쪽 팔목 부분에서 발견된 걸로, 바깥쪽에는 발이 3개인 두 마리의 용이 꿈틀거리듯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었다. 이 팔찌는 높은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안쪽에 새겨진 글씨로 인해 더운 주목받고 있다.

팔찌에 새겨진 명문에는 팔찌의 제작시기와 제작자, 제작한 이유 등이 새겨져 있으며, 명문의 바깥쪽에는 가는 음각 선으로 테두리를 새겨 놓았다.



[그림 12] 금·은제팔찌

〈표 10〉 백제 웅진시기 무령왕비 팔찌 조형특징 분석

장신구 유형	조형특징	기법	재료	출토지
무령왕비 명문 팔찌 	'多利作' 다리작 명문이 안쪽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용문이 생동감 있게 양각 됨.	양각, 음각 기법	은	무령왕릉
무령왕비 금은제 4절 팔찌 	다각의 금봉과 은봉 2마디씩 서로 연결시켜 4절로 만들어졌으며, 금과 은을 망치로 단조하여 양끝을 가늘게 만들어 뺨을 하지 않고 감아서 만들어짐.	단조 기법	은	무령왕릉

무령왕비 금제 새김는 팔찌 	톱니문양 32개가 새겨져 있음.	새김 눈 기법	금	무령왕릉
---	-------------------	---------	---	------

### 2.4.6 머리 장신구

백제시대의 머리 장신구에는 비녀, 뒤꽂이 등이 있다. 하지만 머리장식 또한 남겨져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왕의 머리 장신구 뒤꽂이는 백제시대의 으뜸가는 장신구 중의 하나이다.

#### ① 은비녀

특히 백제 무령왕릉에서 나온 왕비의 은비녀는 비녀 머리를 살구나뭇잎 형태로 꾸미고, 거기에 넝쿨·꽃·구슬 무늬 등을 장식하였다.

비녀의 재료는 금·은·백동·놋·진주·옥·비취·산호·나무·뽕·참대 등이었고, 머리장식에 따라 봉잠(鳳簪)·용잠(龍簪)·매죽잠(梅竹簪)·죽잠(竹簪)·매조잠(梅鳥簪)·죽절잠(竹節簪)·연봉잠(連峰簪)·모란잠(牡丹簪)·석류잠(石榴簪)·화엽잠(花葉簪) 등의 명칭도 생겨났다. 또한 비녀의 크기에 따라 활용이 달랐는데 예복용으로는 큰 비녀를 일상생활에서는 작은 비녀가 쓰였다.

서민층의 비녀는 일반적으로 민비녀(珉簪)이고 비녀 머리에 조각된 문양도 소박하였다. 평상시에 꽂았던 서민층의 은제비녀(銀製簪)는 단조로우나 독특한 미를 느끼게 하는데 길이가 짧고 머리 부분은 각진 형태인 네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진 비녀머리 중앙에 도안화된 수(壽)를 음각(陰刻)하기도 하였으며, 비녀 머리와 비녀 끝 부분에 국화(菊花)와 매화(梅花), 새(鳥), 나비를 조각(彫刻)하였다. 부부간의 금슬을 상징하는 나비와 길상문자인 수(壽) 등을 비녀에 조각하여 여인의 염원을 담기도 하였다.[7]

#### ② 뒤꽂이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머리 장식인 금제 뒤꽂이는, 금으로 만든 것으로 1971년 무령왕릉에서 출토 되었다. 뒤꽂이의 총길이는 18.4cm 이, 위쪽의 너비는 6.8cm이며, 국보 제159호이다.

뒤꽂이는 비녀 이외의 머리꾸미개를 말하는 것으로,

[6] 김재수 (2008). 백제의 숨결, 국립중앙도서관, 114

[7] <http://museum.amorepacific.co.kr>

백제시대의 뒤꽂이는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역삼각형 모양이며, 밑은 3가닥의 핀 모양을 이루고 있다. 역삼각형 머리 부분은 새가 날개를 펼친 것 같은 조형금판을 두드려 화형과 당초문을 나타내었다. 아래 부분의 3개의 꽃이 쪽은 긴 꼬리를 연상하게하며 전체적으로 날고 있는 새의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그림 13] 무령왕 금제 뒤꽂이

## 2.5 백제 장신구의 조형적 특징

475년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밀려 한산에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게 된 백제는 해상루트를 통한 남조의 양(梁) 등과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진보적인 중국의 문화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물론 전대에도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고구려와의 대외적 관계 악화에 따른 교역의 어려움 등으로 해상루트를 통한 남조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백제문화 전반에 걸쳐 남조문화의 영향을 농후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금속공예품에 있어서도 정교한 제작기술을 발휘한 다양한 작품의 출현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령왕릉 출토의 금속공예품들이다.[8] 무령왕릉 부장품은 거의 웅진말기에 해당되며 이 시기 무령왕의 재 임기를 전후하여 백제 장신구문화는 그 성숙기를 맞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무령왕릉 부장품에는 그러한 남조문화의 화려하고도 완숙한 기량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장신구들은 왕실 부장품이라는 특성상 당시로서는 가장 진보적인 역량과 정성을 동원하여 제작하였을 것이지만 개개의 작품이 지니는 놀라우리만치 정교한 제작기술과 참신한 조형 감각은 신라, 고구려와는 또 다른 백제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9]

관은 신촌리 9호분 관과 무령왕, 무령왕비의 관식이 있고, 웅진시기의 귀걸이는 백제시대의 귀걸이 중 가장

화려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신촌 9호(을), 신촌9호(경), 덕산4호(을)와 무령왕비 팔찌가 있고, 금동식리의 종류로서는 신촌리9호분과 북암3-96석실에서 출토 된 금동식리가 있다. 목걸이는 주로 금, 은, 옥, 유리 등이 사용되었으며, 금제는 무령왕릉에서 출토 된 왕비와 왕의 목걸이가 있다.

웅진시기 장신구는 남북조 절충양식이 나타나는 시기가 할 수 있고, 이 시기의 장신구는 특히 부드럽고 유연한 형태를 보여준다. 웅진시기의 장신구는 왕릉급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으로서 정교한 금세공기법과 세련된 무늬 등 백제 왕실문화 가치를 엿볼 수 있다.

## 3. 결론

백제의 장신구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백제인의 정서와 다양한 문화가 결합된 창조적인 정신세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산업화 속에 문화 콘텐츠라는 요소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공주·부여에서 2년에 한번 씩 개최하던 문화제 행사를 이제는 매년 공동 주관으로 행하며, 지난 2010년에는 세계 대백전이라는 타이틀로 세계 여러 나라와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고, 백제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에게 백제의 역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런 백제문화관련 행사를 통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로 하여 백제의 문양을 응용한 장신구의 제작과정 견학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역사에 묻혀있는 유물이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 숨 쉬는 백제문화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백제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여 현대의 디자인과 우리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잘 결합되도록 연구 분석 하였으며, 후세에까지 고유한 우리 문화의 관심과 맥이 이어져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조형적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는 내용에 있어 백제문양의 특징을 파악해 현대적인 장신구를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현대의 젊은이들이 우리문화와 우리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백제유물과 우

[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백제의 미술,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17

[9] 백제문화연구소 (1991), 백제무령왕릉, 공주대학교, 350

리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의 전통을 계승발전하길 바란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백제시대의 전통 문양 및 조형적 특징을 더욱 연구하고 분석할 것이다.

현대의 문화와 접목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조형적 디자인으로 개발 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에도 백제문화의 우수성 및 조형적 특징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박 승 철



- 1987년 2월: 원광대학교 금속공예학과(미술학사)
- 1997년 8월: 원광대학교 대학원 귀금속공예과(미술학석사)
- 1998년 9월~현재: 공주대학교 주얼리디자인전공 교수
- 관심분야: 귀금속공예, 주얼리디자인, 문화콘텐츠

· E-Mail : scpark@kongju.ac.kr

### 참 고 문 헌

- [1] 이상우(1999), 동양미학론, 시공사, 17
- [2] 김정옥 (2010), 백제장신구에 나타난 조형적 특징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19
- [3] 최준자 (1992), 장신구의 세계, 예경출판사, 82
- [4] 진홍섭 (1982), 백제, 신라의 관모, 관식에 관한 23가지 문제, 고문화총론제10집, 133
- [5] 정창범 (2002), 아름다운 한국공예의 역사, 학연문화사, 88
- [6] 김재수 (2008). 백제의 숨결, 국립중앙도서관, 114
- [7] <http://museum.amorepacific.co.kr>
- [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9), 백제의 미술,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17
- [9] 백제문화연구소 (1991), 백제무령왕릉, 공주대학교, 350

### 신 미 영



- 2009년 2월: 공주대학교 주얼리디자인전공(미술학사)
- 2011년 2월: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미술학석사)
- 2012년 2월~현재: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박사과정)
- 관심분야: 귀금속공예, 전통공예, 문화콘텐츠

· E-Mail : 9999sin@daum.net